

# ‘역풍’ 우려했나... ‘개헌 톤’ 낮춘 아베

### 국회 시정연설서 간략히 언급...자민당은 인터넷 방송 등 통해 개헌 여론 끌어올리기 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개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쳐 의도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개헌과 관련해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은 것으로, 다음 시대의 길잡이”라며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당이 논의를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일본의 내일을 열어젖히는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는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위기를 강조하면서 “각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가져와야 한다”고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과 대비된다. 그는 작년에는 “국가와 헌법의 이상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50년, 100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 만들기를 행하겠다”고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올해는 이런 식의 수사도 빠졌다.

여기에는 그동안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을 통해 개헌 논의에 채찍질을 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아베 총리의 목소리가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를 불붙이기는커녕 오히려 개헌에 대한 ‘경계론’이 거세지는 역풍을 낳았다. 자민당이 개헌 추진에 힘을 주고 있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급격한 개헌 추진에 반대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1월 자민당의 시모무

라 하쿠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야권을 향해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해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도 저조한 편이어서, 지난 12-15일 NHK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급하게 진행할 필요 없다” (50%), “개헌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 (14%) 등 부정적인 의견이 62%나 됐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춘 것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다른 정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

한 개헌안으로 전후 첫 개헌을 성사시켜 2020년 시행한 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를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춘 대신 자민당은 인터넷 방송이나 지방 강연을 통해 개헌 여론을 ‘조용히’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개헌추진본부는 지난 23일 이 당의 인터넷 방송 ‘카페스타’를 통해 자민당의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자민당은 다음달 10일 전당대회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를 열어 자민당 개헌안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이며 개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계획이다. 또 전국 289개 중의원 소선거구에 있는 자민당 지부에 헌법개정추진본부를 설치해 울어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67〉 구사량

구사량(仇士良, 781-843)은 광동성 순주 흥녕 출신으로 당 헌종, 목종, 경종, 문종, 무종 5대에 걸쳐 활약한 실세 환관이었다.

순종 때 태자 이순을 보좌했다. 이순이 헌종으로 즉위하자 내급사가 되고 평모와 봉상의 군대를 감독했다. 환관 왕수징의 지휘를 받았지만 서로 앙숙이었다. 우신책 영군장군을 거쳐 좌신책군중위에 발탁되었다. 문종은 환관이 황제를 핍박하는 정치적 현실이 크게 실망했다. 환관을 제거해 황권이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환관의 신임을 받은 이훈과 정주를 이용해 환관 세력에 타격을 가하려는 계획을 꾸렸다. 835년 이훈은 문종에게 “먼저 환관을 제거한 뒤에 변환을 수복하시고 그런 뒤에 하복 번진을 끌어내야 합니다”라는 글

를 받는 금군이 출동해 쿠데타는 실패했다. 궁에 갇힌 6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천명의 사람이 살해되는 복수극이 뒤를 이었다.

구사량은 문종 면전에서 불손한 인사를 하는 등 황제를 황제로 대접하지 않았다. 문종은 집안에서 부리는 종들에게 수모를 당한다는 한탄만 늘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짐은 가복인 환관을 상대하는 것도 모자라 패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못났구나.” 동한 말 이후 사실상 제2의 환관시대가 열렸다. 환관들이 근무하는 복사(北司)가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다. “천하의 모든 일은 복사에 달려 있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840년 32세의 나이로 문종이 태화전에서 불어났다.

감로지변 이후 맘에 들지 않는 조정 대신을 체포해 살해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다. 후후위대장군과 표기대장군을

### 당 헌종~무종 5대 활약 실세 환관

을 올렸다. 왕수징 세력을 거세하기 위해 헌종을 살해한 환관 진홍지를 몽둥이로 때려죽였다. 왕수징을 좌우신책군용사 겸 십이위동군으로 승진시켰다. 자신감에 취한 왕수징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대비하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에서 왕수징은 관저에서 독주를 마시고 죽었다.

구사량이 사실상 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835년 11월 감로의 변이 일어났다. 조화가 시작되자 좌금오대장군 한약이 곤손한 자세로 말을 하였다. “후원의 석류나무에 어젯밤 갑자기 감로(甘露)가 내렸습니다. 폐하의 성덕에 하늘이 감동해서 길조를 내려주었으니 조정과 나라에 큰 복이옵니다.” 이훈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황제에게 직접 감로를 살펴 보자는 청을 올렸다. 황제의 측근인 환관을 한자리에 모으는데 매우 그럴싸한 구실이였다. 황제는 조정 대신들과 환관이 가서 감로를 먼저 살펴보고자 명하였다. 구사량이 후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대기 중이던 한약이 긴장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마침 지나가는 바람이 불어 장막이 흘러내렸다. 장막 뒤에는 무기를 든 병사들이 숨어 있었는데 들뜸이 났다. 궁중 쿠데타를 눈치챈 구사량이 신속히 문종을 호위해 함원전으로 달아났다. 환관의 지휘

역임하고 초국공에 봉해졌다. 좌우신책군을 모두 통솔해 금군(禁軍)을 장악했다. 왕수징을 좌우신책 좌우신책군용사 겸 십이위동군으로 승진시켰다. 자신감에 취한 왕수징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대비하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에서 왕수징은 관저에서 독주를 마시고 죽었다.

구사량이 사실상 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835년 11월 감로의 변이 일어났다. 조화가 시작되자 좌금오대장군 한약이 곤손한 자세로 말을 하였다. “후원의 석류나무에 어젯밤 갑자기 감로(甘露)가 내렸습니다. 폐하의 성덕에 하늘이 감동해서 길조를 내려주었으니 조정과 나라에 큰 복이옵니다.” 이훈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황제에게 직접 감로를 살펴 보자는 청을 올렸다. 황제의 측근인 환관을 한자리에 모으는데 매우 그럴싸한 구실이였다. 황제는 조정 대신들과 환관이 가서 감로를 먼저 살펴보고자 명하였다. 구사량이 후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대기 중이던 한약이 긴장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마침 지나가는 바람이 불어 장막이 흘러내렸다. 장막 뒤에는 무기를 든 병사들이 숨어 있었는데 들뜸이 났다. 궁중 쿠데타를 눈치챈 구사량이 신속히 문종을 호위해 함원전으로 달아났다. 환관의 지휘

### 美 20대 총기 참극

#### 여친·가족 등 5명 살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20대 청년이 총기로 여친과 여친의 가족, 자신의 부모까지 모두 5명을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인 다코타 테리엇(21·사진)은 전날 오전 9시께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서 여친구인 서머 머니스트(20)와 그녀의 아버지, 남동생(17) 등 3명을 총기로 살해했다. 참극이 벌어진 여친구의 집에는 당시 7세와 1세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리엇은 1차 범행을 저지른 후 여친구 부친의 픽업트럭을 훔쳐 타고 리빙스턴에서 약 48km 떨어진 어센션으로 이동, 자신의 부모까지 살해했다. 어센션 지역의 보안관인 바비 웨브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까지 해도 테리엇의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아들이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테리엇은 범행 직후 픽업트럭을 몰고 도주했다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약 1천600km나 떨어진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 카운티의 할머니 집에서 체포됐다.

테리엇의 정확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부모와 함께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하다 몇 주 전 나가 살라는 말을 듣고 여친구의 집에서 자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노란 조끼’ 반발 ‘빨간 스카프’ 시위 ‘노란 조끼’ 시위대의 폭력화 양상에 반발한 ‘빨간 스카프’ 시위대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맞불 집회를 갖고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재선거’ 유럽 최후통첩 거부

#### 美 ‘중대 대응 직면’ 경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일주일 정도의 시간 내에 새로운 대선계획을 발표하라는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반(反) 마두로’ 전선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대한 대응’을 잇따라 경고하며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의 토크 방송인 ‘CNN 튀르크’와의 인터뷰에

서 “그들(유럽 국가들)은 이 최후통첩을 거두야 한다. 누구도 우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에 유럽에 매여있지 않다. 이것은 너무 무례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실수’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26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마두로 대통령에게 8일 내로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영국과 스페인도 비슷한 최

후통첩을 날렸다. 유럽연합(EU)도 같은 날 베네수엘라가 향후 며칠 내에 대통령 선거 실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전날 자국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같은 유럽의 요구를 이미 거부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과이도 의장이 헌법을 어겼다”면서 미국이 자신의 집권에 반대하는 쿠데타 시도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11억(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은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6834-7400